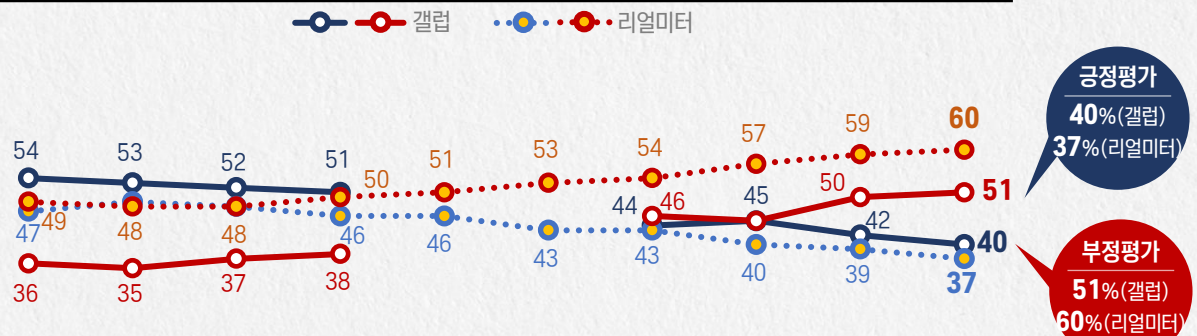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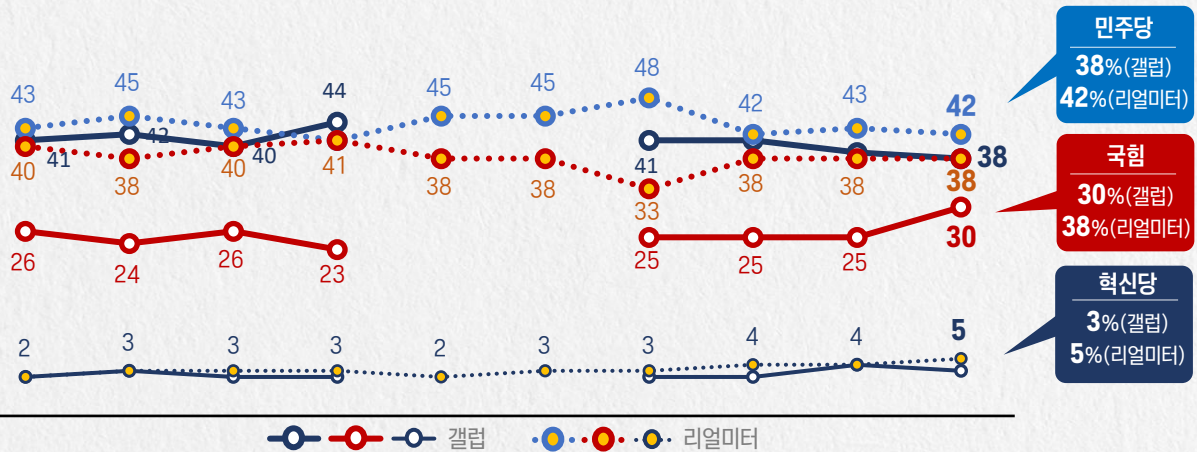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흐름
- 지명(8.30)에서 부터 지난 주말(9.6)까지 8일 간의 분석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7월 1주차 ~ 2026년 9월 1주차,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정당
지지도정치권
주요뉴스

- (08.30)李大統領, 6개 부처 장관 교체 개각 단행...재경·국방·국토장관 등 교체 / 개각 후폭풍 확산...野 김승원·용혜인에 '십자포화'
- (09.01) 김용범 정책실장 전격 사퇴...경제·부동산 라인 전면 교체 / 내년 821조 '슈퍼예산' 편성...성장엔진·청년·지방 집중투자
- (09.02) 용혜인 '검직 버티기'에 난감한 與..."비례직 던져야" 의견 분출 / 국회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 (09.03) 野 인사검증, '청탁의혹' 김승원-특혜논란 용혜인 집중포화...여권 내부도 "용혜인 부적절"
- (09.04)李大統領, 마크롱 초청으로 6일~9일 프랑스 국빈방문 / 靑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절차따라 검토단계...정해진 건 없어"

※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부)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	-	-	-	-	-	-	-	-	-
	갤럽	09/01 ~ 03	1,001	10.9%	40	51	(-11%p)	38	30	3	(25)
	꽃	09/04 ~ 05	1,002	9.8%	47	52	(-5%p)	43	36	4	(14)
ARS (RDD)	리얼미터	08/27 ~ 28	1,006	2.9%	39	59	(-20%p)	43	38	4	(9)
	꽃	09/04 ~ 05	1,005	2.3%	42	57	(-15%p)	45	38	6	(4)

여론
동향

- [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동훈 9%**, **김민석 7%**, **오세훈 5%**, 조국·장동혁 4% 順
행정수도 위치: **서울시로 유지 44%** vs. **세종시로 이전 48%**
청와대 세종시 이전: **찬성 38%** vs. **반대 53%**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52%** vs. 반대 38%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이전하는 것이 좋다 57%** vs.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34%
- [리얼미터] 이재명 정부 분야별 경제 정책 종합 평가: **잘함 36%** vs. **잘 못함 61%**
경제 분야별 평가(부동산·주거): **잘함 30%** vs. **잘 못함 66%**
경제 분야별 평가(주식·자본시장): **잘함 35%** vs. **잘 못함 62%**
경제 분야별 평가(물가·민생경제): **잘함 36%** vs. **잘 못함 61%**
경제 분야별 평가(산업·경제성장): **잘함 37%** vs. **잘 못함 59%**
- [꽃]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김민석 12%**, **조국 8%**, **정청래 6%**, 김부겸·강훈식 5% 順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오세훈 13%**, **한동훈 12%**, **장동혁 7%**, 이진숙 6% 順
개각 평가: **긍정평가 42%** vs. **부정평가 55%**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 **합당 24%** vs. **합당하지 않은 채로 연대 27%** vs. **독자 노선 38%**

03 정세 읽기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흐름 - 지명(8.30)에서 부터 지난 주말(9.6)까지 8일 간의 분석

개각 발표 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 공세가 이어지고, 여당은 방어와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들 두 인사에 대한 검증과 통과에 가을 정국의 주도권이 달려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좀 더 강해 보인다. 초기 여론의 초점이 주로 용혜인에 맞춰져 있었다가 점차 김승원으로 옮겨 가는 양상이다. 두 후보자와 여권은 이런 악조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8일 간 온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김승원 후보자

● 공소취소 프레임을 접은 자리에 청탁 녹취 검증이 들어왔다

청와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을 지명 사유로 들었지만,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경력을 앞세우면서 첫날부터 논쟁의 주제는 후보자의 자격이 아닌 대통령 재판이 됐다. 8월 31일 한동훈 의원이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과 기소유예 처분을 꺼냈고, 9월 3일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며 정치 쟁점을 접자 그 자리를 청탁 검증이 채웠다. 검찰 기소 계획 보고서,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과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가 담긴 통화 녹취가 하루 한 건 꼴로 공개됐고, 음주운전 전력 사과와 공수처 고발, 가족 의혹이 더해진 9월 6일 언급량이 8일 중 가장 높았다. 쟁점은 공소취소라는 정치 논쟁에서, 해명이 나올 때마다 이튿날 반박 자료가 나오는 청탁 검증 국면으로 옮겨 갔다. 지금까지 온라인 여론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그 원인은 야당의 프레임이 아닌 해명이 매번 뒤집힌 사실관계에 있으며, 지지 게시판까지 방어 논리가 약화된 상태다.

● 여권 성향 게시판의 향후 반응이 관건, 청탁 vs. 검찰 캐비닛?

커뮤니티는 지명 당일 “용혜인은 미끼”라는 구도 해석으로 시작해, 뒤의 나흘에는 “점점 용혜인 사건보다 김승원 사건이 더 커지는 느낌”처럼 미끼론을 뒤집었다. 보수·중도 갤러리는 한동훈 의원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옮기는 게시판이 됐고, 여권 지지 성향 게시판은 전반적 실망감에서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낙마시켜야한다”는 교체 요구까지 나왔다. 그 게시판에서의 반격은 후보자 옹호가 아닌 한동훈이 발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수집된 게시물의 부정 비중은 지명 당일 4분의 1에서 나흘째 절반에 이른 뒤 내려오지 않았다. 여당은 “거짓 선동”이라는 사실관계 반박에서 “캐비닛 장사”라는 출처 공격으로 방어선을 옮겼고, 야당은 “지명 철회 0순위”에서 “청문회가 아닌 특검”으로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

03 정세 읽기

● 김승원 관련 핵심 키워드

1. 공소취소

8일 중 절반을 규정한 단어다. 후보자는 올해 2월 출범한 공취모의 공동대표이며, 지명 이틀 전 워크숍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지명 당일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고, 해시태그 ‘#공소취소’가 함께 늘었다. 후보자는 9월 3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뒤의 나흘에 이 단어의 언급은 줄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청탁 의혹이 그 자리를 채웠다.

2. 청탁·브로커

8일 중 뒤 절반을 규정한 단어다. 8월 31일 한동훈 의원이 예결위에서 처음 제기했고, 이어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 원문, 브로커 양씨와의 통화 녹취가 잇따라 공개됐다. 후보자 측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브로커·업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2022년 이후 만난 적 없다”는 해명은 이듬해 만남 보도로, “우연히 찍은 사진”은 “동생,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라는 녹취로, “문자 두 번이 전부”는 추가 통화 녹취로 하루 만에 반박됐다. 후보자 해명의 신뢰성과 자료 출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 한동훈·통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8월 31일 예결위 질의로 시작해 9월 2일 문자 원문, 9월 3일 영장판사 술자리와 페이스북 의혹, 9월 4일 기소 계획 보고서와 ‘3인 셀카’, 9월 5~6일 통화 녹취를 하루 한 건 꼴로 공개했고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한다”,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했다. 김승원 공격의 중심에 한동훈이 있다. 해시태그 ‘#한동훈’은 ‘#인사청문회’ 다음으로 많았다. 여당은 김민석 대표의 “갑자기 총기 난사 형태”, 조계원 대변인의 “또 캐비닛 장사냐”로 맞섰고 김동아 의원은 수사기록을 넘긴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여당은 한동훈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를 검찰로 의심하고 있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03 정세 읽기

용혜인 후보자

● 의원직 유지가 모든 비판의 입구가 됐고, 성평등 의제는 사라졌다

개각 발표 첫날부터 국회의원 겸직이 논란이 중심이 됐다. 8월 31일 후보자가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공식화하자 야당은 ‘연간 11억’ 국고보조금과 “귀족 행세”로 받았고, 9월 1~3일 남편의 당 급여와 부동산 차익, 정치자금법 고발이 이어졌다. 9월 4일 6년 전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던 발언이 소환됐고, 9월 5일 후보자 측이 “당비는 절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처음 반박한 날 야당은 청와대 김현지 인사를 배후로 지목했으며, 9월 6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노동당 출신 ‘언더조직’을 들어 “의원직도 사퇴해야”라고 했다. 8일 간의 쟁점은 ‘왜 의원직을 놓지 않나’에서 ‘남편과 가족이 무엇을 받았나’를 거쳐 ‘누가 배후인가’로 넓어졌고, 후보자가 답한 것은 당비 하나였다. 야권 지지층의 공격 초점이 김승원으로 옮겨 가면서 정보량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 여권 성향 게시판은 등을 돌렸고, 여권은 방어하지 않았다

커뮤니티에서는 여권 지지 성향 게시판이 지명 당일부터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8월 31일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 9월 5일 “주말 안으로 사퇴해야”, 9월 6일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건 기괴하다” 등으로 이어졌다. 우호 반응은 지명 당일 ‘30대 여성 장관’의 상징성과 기본소득당 논평에 그쳤고, 이후에는 후보자 대신 공격 방식을 문제 삼는 형식 정도만 남았다. 수집된 게시물의 부정 비중은 거의 절반 안팎이었고, 우호 게시물은 적었다. SNS에서는 지명 이틀째 X의 “용혜인 무시해, 김승원을 봐라” 답글 릴레이가 정점을 만든 뒤 조직적 게시는 사라졌고, 유튜브가 SNS의 중심이 됐다. 유튜브 제목은 ‘11억’에서 ‘남편’으로, 다시 ‘직에 연연하는 모습 안쓰럽다’는 4년 전 발언의 부메랑으로 옮겨 갔다.

이 기간 여당은 “실력 있다”는 옹호에서 “후보자 결단”을 거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로 옮겨 갔고, 야당은 지명 철회에서 의원직 사퇴로 요구 수준을 높였으며, 청와대는 철회도 부담이라며 고심에 들어갔다. 여권이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지, 청문회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가 현재의 관전 포인트다.

03 정세 읽기

● 용혜인 관련 핵심 키워드

1. 의원직 · 겸직

8월 31일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9월 2일 첫 출근길에서도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며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9월 6일 박선원 최고위원의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까지 여당 안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후보자 자신의 이 결정이 이후 이어지는 비판의 입구가 됐고, 이후 등장한 모든 소재가 이 결정의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젊은 층에게는 특권, 특혜 논란으로, 비례대표·위성정당 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2. 남편 · 국고보조금

8월 31일 나경원 의원이 기본소득당 보조금을 연간 11억원으로 계산해 겸직 사유로 지목했고, 9월 2일 남편이 당에서 매달 약 300만원을 받아 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가족소득당’이라고 불렀고, 9월 3일 창당 사흘 뒤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며 특별당비 2억 9천만원이 급여로 돌아갔다는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이 접수됐다. 9월 4일에는 후보자가 6년 전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더해졌고, 9월 5일 후보자 측은 당비가 “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 김승원 · 미끼론

같은 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과 묶여 소비된 단어다. 인물 연관어 신규 진입 1위이며, 해시태그 ‘#김승원’도 상위에 들었다. 지명 당일 커뮤니티에서 “용혜인은 연막이고 진짜는 김승원”이라는 해석이 먼저 나왔고, 8월 31일 나경원 의원이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이라고 쓰면서 공식화됐으며, X에서는 “용혜인 무시해”로 시작하는 답글이 이 논리를 그대로 옮겼다. 뒤의 나홀에는 구도가 뒤집혔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자료를 연일 공개하자 커뮤니티는 “용혜인 정리하고 김승원 살리기”라고 읽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버리는 카드 용혜인이 공격 받는 동안 김승원을 묻어가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